J Korean Epilep Soc 4(1) : 42-46, 2000

간질 치료에 있어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민간요법에 대한 인식

Public Awareness toward Folk Medicine for Epilepsy Treatment in Rural Areas

김명규 · 김병채 · 조기현

Myeong-Kyu Kim, M.D., Byeong-Chae Kim, M.D. and Ki-Hyun Cho, M.D.

ABSTRACT

Background : Negative public attitude toward epilepsy is a common phenomenon all over the world and one of the major factors causing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epilepsy. In general, those with epilepsy have considerable limitations in their interaction with and adaptation to their surroundings, and some of them find social attitudes more devastating than the disorder itself. ***Methods*** : In order to indicate folk medicines known as an epilepsy treatment among Korean rural residents and to deduce the background of the negative attitudes from analysis of the estimated effect of the folk medicine, a survey was conducted in a Korean rural area. ***Results*** : Of 713 persons contacted in the survey, 22%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knew at least one folk medicine as an epilepsy treatment. About 55% of the folk medicines were superstitious or incantational one such as eating the organs of animals or humans, or soup boiled with the branches of a tree struck by lightening, or with a rope used in a suicidal hanging. From the results, we can deduce the fact that the understanding of epilepsy by the Korean respondents base on the supernatural or superstitious thinking that seem to be attributed to our own unique culture. ***Conclusion*** : In order to ameliorate prejudices against epilepsy and allow epileptic persons to interact with and adapt to their surrounding properly, not only continuous and repetitive educational efforts but also the sympathy of professional and lay societies regarding epilepsy would be needed. (**J Korean Epilep Soc 4 : 42-46, 2000**)

KEY WORDS : Epilepsy · Public awareness · Folk medicine · Superstition · Educational effort.

서 론

간질에 대한 기록이 기원전 2080년 Hammurabi 법전에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치료로서 과학적 이론에 근거를 둔 현대적 개념의 치료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론적인 근거가 전무한 잡다한 민간요법들이 시행되고 있었다.[1-3]

간질은 고대로부터 악마의 저주에 의한 소산이라거나 하늘이 내린 병쯤으로 인식되어 왔다. 간질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붙잡다"라는 뜻인 "Seize"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마귀에게 붙잡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4] 이러한 편견은 간질의 치료법이 발달하여 대부분의 간질발작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현재에도 상존하는 것으로 간질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5-7]

우리나라에서 간질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 간질은 치료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라는 잘못된 생각임이 사전 조사결과 밝혀진 바 있다.[6] 특정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고 나아가서는 행동양상까지를 지배한다는 일반론을 상기해볼 때, 일반인들이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간질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천질"이라고 생각했음도 무리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일반인이 생각하는 간질환자에 대한 민간요법에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나름대로 용해되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민간요법이 내포하고 있는 치료 기전을 유추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간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정도를 가늠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Department of Neur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Kwangju, Korea

교신저자 : 조기현, 501-190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8

TEL : (061) 221-6161 · FAX : (061) 228-3461

E-mail : kcho@chonnam.ac.kr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방법

1999년 3월 전남지방 농촌지역 주민들의 간질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수렴하기 위해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성군 문덕면, 곡성군 오산면, 순천시 송광면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대면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자는 10여명의 신경과 의사 및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자 간의 설문 진행상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조사 전에 설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그 지역사회에서 구전되어 오거나 실제 행해지고 있는 간질에 대한 민간요법의 종류를 채집하였다. 설문은 응답자의 성별, 학력, 연령 등 개인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과 간질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및 알고있는 민간요법을 기술할 수 있는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자의 경우 가능하면 응답자의 표현 그대로를 준비된 형식에 기록하였다. 응답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 도중 조사자에 의한 어떠한 암시나 유도도 허용하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민간요법에 관한 내용에 국한하였으며 민간요법의 동질성 및 응답자가 기대하는 치료기전에 따라 크게 동물성, 식물성, 기타로 분류하였고, 그중 기대되는 치료기전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거나 미신적인 요소가 강한 것은 주술적인 요법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민간요법을 선호하는 집단과 주술적인 치료를 선호하는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Chi-square test (SPSS/Win 7.0)를 이용하였고 p value 0.05 이하를 유의수준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features of respondents (n=713)

Age (years)	Numbers	%
<49	131	18
50 - 59	141	20
60 - 69	217	30
>70	224	32
Total	713	100
Gender		
Male	288	40
Female	425	60
Total	713	100
Level of education[a]		
Never	309	43
Grade	261	37
>Junior	143	20
Total	713	100

a : Never ; never went to school, Grade ; grade school, >Junior ; junior high school or above

결 과

총 713명의 주민이 설문에 응하였고 성별, 연령, 학력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여성이 60%로 우위를 점하였고, 60세 이상의 응답자가 전체의 62%, 초등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22%(156명)가 간질의 치료방법으로서의 민간요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인당 평균 2.4 종류의 민간요법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성별, 연령 및 학력에 따른 민간요법 선호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2). 기술된 민간요법의 그 동질성 및 치료기전에 따른 분포는 Table 3과 같다. 민간요법을 기술한 총 156명의 응답자 중 86명(55%)이 간질의 치료방법으로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주술적 요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술적 요법에 쓰이는 재료 중 인골, 인육, 사람 및 동물의 태반 등 동물의 장기가 46예로 가장 많았고, 사람이 목을 매달아 자살한 나뭇가지나 그 밧줄을 삶은 물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23예, 벼락을 맞은 나뭇가지나 돌 또는 동물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19예, 그리고 사체 썩은 물을 사용한

Table 2. The response to the question ; Do you know any folk medicine as an epilepsy treatment?

Response	Age (years)				Gender		Level of education[a]		
	<49	50 - 59	60 - 69	>70	Male	Female	Never	Grade	>Junior
Yes	20	30	52	54	58	99	72	56	27
No	111	111	165	170	230	326	237	205	116
P[b]	0.205				0.346		0.576		

a : Never ; never went to school, Grade ; grade school, >Junior ; junior high school or above
b : P value by Chi-square test

다는 응답이 9예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목매달아 자살한 여자의 속옷이나 떨어져 죽은 강오리, 까치가 물어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끼워 놓은 청개구리 등 재료는 평범하지만 특수한 조건을 전제로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주술적인 민간요법을 선호하는 응답자들과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 사이에 학력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가 남자에 비해 주술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4). 주술적인 성격이 농후하지만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려웠던 응답들을 특성에 따라 동물성, 식물성, 기타로 분류하였을 때, 동물성 재료로서는 황새, 부엉이, 굴뚝새, 청둥오리, 독수리 등 조류, 고양이, 고슴도치, 말 등의 포유류, 개구리, 뱀 등의 파충류가 이용되고 있었고, 식물성 재료로서는 어삼뿌리, 우슬뿌리, 환각구 뿌리 등 각종 약초 뿌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기타 재료로서는 관목, 누에오줌, 호분 등 비교적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 반면, 샘물, 번데기, 은단, 소금, 보리단술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Folk medicines for epilepsy treatment used in Korean rural areas

동물성	식물성	주술적 요법	기타
황새	약초뿌리	인골	관
부엉이	삼	태(사람, 고양이, 소 등)	샘물
고양이	산초	벼락맞은 나무, 돌 삶은 물	짚 우장
누에	환각구	목 매달은 나무, 줄 삶은 물	누에 오줌
고슴도치	석장포즙	사체 썩은 물	호분
말	제주도 풀	가시나무에 걸린 동물	번데기
굴뚝새	오가피	까치가 물어다 놓은 개구리	은단
뱀	호박	벼락맞은 황새	소금
청둥오리	수나무 열매	목매달아 죽은 여자의 속옷	점
독수리		인간의 정액	보리단술
지렁이		옷 거는 대나무	꿀
청개구리		떨어져 죽은 강오리	

The contents of this table were written in Korean for the convenience in understanding of readers

고 찰

본 연구에 동원된 총 713명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고연령, 저학력, 여성 위주의 분포로서 우리 나라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우리 나라 농촌의 실황을 가감없이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농촌사회가 도시에 비해 더 폐쇄적이고 사회 제 현상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간질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한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여도 무방할 듯 하다.

간질 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대부분 간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8-14]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5][6] 우리 나라 농촌 사회의 간질에 대한 질병관은 "간질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간질은 매우 위험한 병", "간질은 유전되는 병", "간질은 전염되는 병"이므로 간질환자는 가까이 해서도 안되고, 아이를 낳아서도 안되며, 격리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6] 이러한 생각 때문에 치료가 잘 되어 발작이 전혀 없는 간질환자에게조차 구직, 결혼, 교류 등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렇듯 잘못된 편견의 저변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 그러한 편견이 유독 심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 사회의 민간요법 및 질병관에는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첫째로는 그 민족 특유의 문화적 바탕 위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의 특징이 용해되어 있을 수 있고, 둘째로는 상대적으로 지식수준이 낮고 합리적 사고의 지배력이 약한 계층의 소산이므로 오히려 합리적 사고를 초월하는 무의식의 내면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15] 이에 근거하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토

Table 4.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prefer superstitional folk medicine

	Age (years)				Gender		Level of education[a]		
Response	<49	50 – 59	60 – 69	>70	Male	Female	Never	Grade	>Junior
Yes	10	18	34	30	28	64	42	36	14
No	121	123	183	194	260	361	267	225	129
P[b]	0.19				0.036		0.468		

a : Never ; never went to school, Grade ; grade school, >Junior ; junior high school or above
b : P value by Chi-square test

양이 간질에 대한 잘못된 질병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자는 간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간요법의 실태를 채집하고 기대치료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간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22%가 간질의 치료방법으로 민간요법을 기술하였고, 그 중 55%가 주술적인 내용이었다. 대개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것이거나 인간이나 동물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고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상황을 조건으로 내세운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해 온 간질이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불치의 병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시신앙의 경우에서 보듯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힘, 즉 벼락과 같은 자연현상이나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신에 의지해서 해결하려는 무의식적인 의지가 작용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우리 사회의 간질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농촌지역 거주자의 62%가 간질이 악마의 저주나 신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간질은 치료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러한 잘못된 편견의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6]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 어느 곳이나 간질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만 우리 나라만큼 주술적인 경향이 강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굳이 비교하자면 같은 동양권인 중국의 연구 결과 그들도 우리처럼 간질 민간요법에 미신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 많았다는 것 정도이다.[8] 물론 서양의 경우 설문 내용에 주술적인 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나 섣부른 단정은 금물이지만, 설문의 내용을 구성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술적인 사고가 중국이나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간질 질병관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결코 지나친 비약만은 아닐 것이다. 고래로 중국과 우리 나라는 동일 문화권을 형성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동, 서양의 간질에 대한 질병관의 차이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 민간의 주술적인 간질 질병관이 "간질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는 뿌리 깊은 잘못된 믿음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서양에서조차 지금과 같은 효과적인 항경련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불과 50여 년 전이니, 그 보다 20여 년 늦은 우리 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질이 치료될 수 없다는 사고가 팽배한 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1979년에 시행한 미국에서의 설문 조사와 비교했을 때 1999년에 시행한 우리 나라의 조사 결과에서 훨씬 편견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79년 미국 응답자의 대부분은 간질을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1999년 우리 나라 농촌 주민 응답자 중 52%가 여전히 간질을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응답하였다.[6][7] 결론적으로 항경련제의 도입시기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이유가 아닌 셈이다. 그보다는 서양의 경우 간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에 일찌감치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국민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지금과 같은 국민 의식의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7]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간질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간질 관련 직종의 종사자는 물론 유관단체가 앞장서서 간질의 실체를 홍보하고 계몽하는 일에 진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간질 질병관이 매우 주술적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그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중심 단어 : 간질 · 주민 인식 · 민간요법 · 미신 · 교육 효과.

• 논문접수일 : 2000년 6월 26일
• 심사통과일 : 2000년 11월 25일

REFERENCES

1) Goldenshon ES. Epilepsy: A comprehensive textbook. Philadelphia: Lippincott-Raven Publishers, 1997:15-39.
2) 김광일 · 원호택. 한국 민간 정신의학 (I). *신경정신의학* 1972;11(2):85-98.
3) 이부영. 의료문화 적응의 제 문제점에 관한 시고. *신경정신의학* 1973;12(2):97-109.
4) Engel J Jr. Seizures and epilepsy. Philadelphia: F.A. Davis Company, 1989:3-36.
5) 김명규 · 조기현 · 정인숙 · 김세종. 간질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연구 -광주지방을 중심으로-. *대한신경과학회지* 1994;12(3):410-27.
6) 박상준 · 정슬기 · 김명규 · 조기현 · 최진수 · 김세종. 전남 농촌지방에서 간질에 대한 사회적 태도 (개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대한신경과학회지* 1996;14(2):389-407.
7) Caveness WF, Gallup GH Jr. A survey of public attitudes toward epilepsy in 1979 with an indication of trends over the past thirty years. *Epilepsia* 1980:21:509-18.
8) Lai CW, Huang X, Lai YHC, Zhang Z, Liu G, Yang MZ. Survey of public awareness,

understanding, and attitudes toward epilepsy in Henan province, China. *Epilepsia* 1990; 31(2):182-5.
9) Iivanainen M, Uutela A, Vilkkumaa J. Public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epilepsy in Finland. *Epilepsia* 1980;21:413-23.
10) Rwiza HT, Matuja WBP, Kilonzo GP, Haule J, Mbena P, Mwangombola R, Jilek-Aall L.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toward epilepsy among rural Tanzanian Residents. *Epilepsia* 1993;34(6):1017-23.
11) Bener A, Al-Marzooqi FH, Sztriha L. Public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epilepsy in the United Arab Emirates. *Seizure* 1998;7: 219-22.
12) Canger R, Cornaggia C. Public attitudes toward epilepsy in Italy: Result of a survey and comparison with U.S.A. and West German data. *Epilepsia* 1985;26(3):221-26.
13) Chung MY, Chang Y, Lai YHC, Lai CW. Survey of public awareness, understanding, and attitudes toward epilepsy in Taiwan. *Epilepsia* 1995;36(5):488-93.
14) Jensen R, Dam M. Public attitudes toward epilepsy in Denmark. *Epilepsia* 1992;33(3): 459-63.
15) 이부영. 한국민간의 정신병관과 그 치료. *신경정신의학* 1970;19(1):35-45.